

유한양행, 신약·CDMO 쌍끌이 성장... 주주환원도 강화

영업이익 669억... 34.1% 증가
렉라자 美·日·中 로열티 수익 확대
4253억 규모 자사주 전량 소각

유한양행이 본업인 신약가치와 자회사 중심의 위탁개발생산(CDMO) 경쟁력이 동반 확대되는 성장국면에 진입했다. 여기에 대규모 자사주 소각 등 주주 가치 제고 전략까지 강화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오는 21일까지 국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NDR)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NDR에서 유한양행은 체질 개선을 넘어 실적과 R&D 성과가 본격화되는 성장 로드맵을 공유한다.

앞서 지난달 이사회에서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포함한 총 4253억원 규모의 자사주 전량 소각을 결의했다. 발행 주식수는 약 8082만 주에서 7476만 주로 7.5% 줄어드는 가운데, 투자자들과 적극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유한양행 본사 전경

이와 함께 실적 역시 뚜렷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유한양행의 올해 2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6140억원, 영업이익은 614억원이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4%, 34.7% 늘었다. 자회사 실적을 포함한 연결 기준 매출액은 6395억원, 영업이익은 6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4%, 34.1% 커졌다.

원료의약품(API) 자회사 유한화학과 개량신약 전문 자회사 애드파마의 매출 확대가 R&D 중심 종속회사들의 손실을 상쇄하며 실적 개선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유한화학을 통한 원료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이 호실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유한양행은 지난 5월 미국 브릿지바이오파마와 약 560억원 수준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또 길리어드 사 이언스와는 약 2102억원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러한 계약들을 바탕으로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경쟁력을 갖춰 나간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도 국산 신약의 혁신성을 입증하며 추가적인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렉라자와 리

브리판트 병용요법이 유럽에서 상업화되면서 마일스톤으로 3000만 달러(약 400억원)를 수령했다.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도 출시가 완료되면서 로열티 수익이 계속 유입될 전망이다. 미국 시장의 경우 지난 7월부터 리브리판트 피하주사(SC) 제형에 미국 지급정산용 약제코드(J-code)가 적용되는 등 처방 기반이 한층 넓어졌다.

유한양행은 렉라자를 비롯해 항암제 단독요법은 물론 자사 파이프라인 간 병용요법, 글로벌 제약사 약물과의 병용 임상 등에 주력하고 있다. 후속 신약개발을 극대화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맞춤형 사업개발(BD) 전략도 구체화한다. 임상시험 공동연구, 뉴코(Newco) 모델 등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해 R&D 가속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혁신 신약뿐 아니라 전통적인 의약품 사업도 지속되고 있다. 올해 2분기 전문의약품 매출은 3028억원, 일반의약품 매출은

640억원이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3%, 11.3% 증가해 의약품 산업 전반에서 판매 호조를 보였다.

헬스케어 사업의 올해 2분기 매출은 6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다.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안 개정에 따른 살충제 매출이 축소되면서다. 유한양행은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주력 제품인 혈당 관리 프로바이오틱스 '당큐락'은 최근 멕시코로 진출했다. 비건 뷰티 브랜드 '딘시'도 베트남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등 해외 시장을 공략한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이번 NDR을 통해 회사의 성장 전략을 투명하게 공유하고자 한다"며 "지난 6월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만큼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본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 가치를 동시에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LG생건, 'NAD+ 기술'로 피부 노화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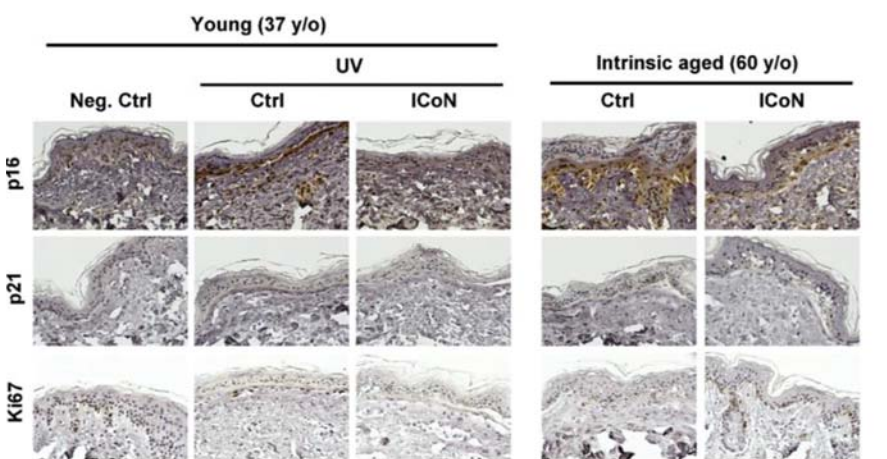
GIST 연구팀과 'NAD Power24' 개발
'머티리얼스 투데이 바이오'에 게재

LG생활건강이 독자적인 연구과학으로 피부과학을 경쟁력을 높인다.

LG생활건강은 독자 NAD+ 전달 기술인 'NAD Power24'의 효능을 입증한 연구 논문이 세계적 권위의 바이오공학 분야 학술지 '머티리얼스 투데이 바이오'에 게재됐다고 20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광주과학기술원(GIST) 의생명공학과 류동렬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세포 노화 조절의 핵심 인자인 NAD+의 피부 투과력과 전달력을 획기적으로 높인 NAD Power24를 개발했고 이를 피부에 도포했을 때 피부 노화가 개선되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특히 차세대 항노화 성분인 NAD+의 피부 흡수력을 개선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NAD Power24'가 피부 노화 신호 및 재생 활동에 미치는 영향.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과 연구팀은 '이온 결합형 변형 리포좀' 기술로 피부 내 NAD+ 투과 효율을 높였다. NAD+를 전달체 내부에 담은 기존 방식 대신 전달체 표면에 이온으로 결합시키고 피부 장벽을 통과할 때 유연하게 변하도록 설계했다. 또 피부 안쪽까지 안정적으로 전달된 NAD+는 세포 에너지를 생성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회복시킨다.

실제로 'NAD Power24'를 바른 후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이 동시에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 DNA가 복구됐고, 산화 스트레스로 늘어난 노화 세포 수는 줄어들었다. 피부 세포의 생존 기간 역시 기존 30일에서 55일로 연장됐다.

/이청하 기자

까스텔바작, 스타 의존 낮추고 유망주 후원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성과

까스텔바작이 스타 의존도를 낮추고 실력과 유망주를 발굴하는 전략으로 브랜드 가치와 실적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

형지글로벌은 까스텔바작이 고효율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마케팅 구조 조정 국면 속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일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KLPGA) 투어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에서 까스텔바작 후원 선수인 문정민 프로가 준우승을 거뒀다. 특히 문 프로가 경기 내내 착용한 니트 소재 반팔 티셔츠 제품군 매출이 전년 대비 15%가량 증가했다.

까스텔바작은 단순한 스타 마케팅을 지양하고 잠재력 중심의 내실 있는 후원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유서연, 박성국 프로 등 꾸준한 기량을 선보이는 선수들을 지



형지글로벌 까스텔바작 후원선수 문정민 프로 /형지글로벌

원하고 임진영·이소유·신아슬 프로 등 유망주에게는 의료 후원과 매니지먼트를 병행하는 등 다각도 지원을 펼쳐왔다.

아울러 레슨 활동 중인 KPGA 프로들을 대상으로 '파트너 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골프 저변 확대와 선수 육성에도 힘을 보탰다.

/김수정 수습기자 kcrystal@

맥도날드 '해피 스낵' 품목 확대 고물가에 가성비 공략

맥도날드가 새로 단장한 '해피 스낵'으로 고물가 속 실속형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

한국맥도날드는 인기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는 '해피 스낵'의 상품군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첫 도입된 해피 스낵은 매시즌 다른 구성을 선보이는 맥도날드의 대표 가성비 플랫폼이다. 이번 개편에서는 인기 메뉴인 '불고기 버거'를 신규 품목으로 전격 내세웠다. 기존 음료와 스낵 중심에서 버거 메뉴까지 영역을 넓혀 가성비 선택지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추가 상품은 ▲게살 크림 크로켓 스낵 ▲솔티드 카라멜 치류스 3조각 ▲그리머스 셰이크 ▲맥링 2조각 ▲아이스 드립 커피(M·L) ▲'불고기 버거' 등이다.

/김수정 수습기자

제스프리, 현대인 위한 영양 관리법 제안

웰니스 토크콘서트 성료

바쁜 일상에 치여 끼니를 거르고 배달 음식으로 식사를 때우다 보면 필요한 영양소를 놓치기 쉽다. 제스프리가 아침 식사와 원물 과일을 활용해 일상에서 부족한 영양을 채우는 방법을 소개했다.

제스프리는 서울 강남구 씨스퀘어에서 웰니스 토크콘서트 '제스프리 영양론'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딱 찬 일상을 위한 딱 찬 영양'을 주제로, 현대인의 식습관을 돌아보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관리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 우창원 원장의 강연을 비롯해 가수 겸 방송인 강남과의 대담, 관객 참여형 질의응답, 행운권 추첨 등으로 채웠다.

"아침 먹으면 저녁의 나를 도울 수 있다". 우창원 원장은 현대인의 영양 불균형

원인으로 아침 결식, 배달 음식 중심의 식사를 꼽았다. 그는 "아침을 거르면 점심·저녁 식욕이 커져 고칼로리·저영양적인 음식을 찾기 쉬워진다"며 "아침에 필요한 영양소를 챙기면 이후 식사에서 할당과 식욕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이어트 중 폭식을 줄이는 방법으로도 아침 식사를 강조했다. 간식 역시 과자나 가공식품 대신 키위와 견과류 같은 원물 식품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특히 건강한 지방을 간편히 섭취할 수 있는 식품으로 호두를 추천했다. 이어 우 원장은 배달음식에는 부족한 식이섬유와 무기질을 원물 과일로 보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단, 과일을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제거되기 때문에 원물 자체로 섭취해야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정 수습기자